

라온아띠 15기 팡가시난타
부팅스쿨 이야기

목차

- 무빙스쿨을 시작 전
- 백송식당, 노인정 이야기
- 어부 이야기
- 교회 아이들 이야기
- 무빙스쿨 하면서 느꼈던 것들



무빙스쿨 시작 전

- 동익 : 원지 모르고 시작했다.
- 현석 : 도시에 비해 생활이 불편할 것 같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찾으려고 생각했다.
- 유림 : 안도의 특색이 원지, 어딜 방문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졌다.
- 연수 : 섬이기 때문에 육지보다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.
- 다운 : 섬사람들의 생활이 불편할 것이라 생각하고, 그것들의 개선 방안을 찾기로 생각했다.

“쉼에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?”

“불편한 점 하나도 없지. 오히려 도시 사람들이 더 불편한 걸?”



- Q : 안도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?

- A : 인심이 좋고, 깨끗하고, 공기가 좋아.

- Q : 문화생활을 하는데 힘들진 않으시죠?

- A : 영화도 VOD로 보고, 커피도 다양 커피 마시. 별로 불편한 건 못느끼는거 같아.

- Q : 식당 일을 하시는데 식재료 구입하기가 힘들지 않으시죠?

- A : 요즘엔 돈을 온라인으로 보내고 물건을 배달해.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.



“밤에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?”

“병원 가는건 몰라도 다른 건 다 편해.”



- Q : 평소에 노인정 말고는 어디 가세요?

- A : 할머니들은 짐짓힐방 무로야.
그래서 짐짓힐방에 자주 가.

- Q : 안도대교가 생기고 어떤 점이 좋아지셨어요?



- A : 딱히 좋아진 건 없어. 안도대교가 생기기 전에도 배로 왔다갔다 해서 똑같아.

- Q : 병원은 어떻게 다녀세요?

- A : 배타고 이동하지. 멀리 여수까지 가야하는게 불편해.





“구해^당하신 이유가 있나요?”

“안도가 좋아서 다시 와 브렸으”

• Q : 안도에는 초중학교 밖에 없는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?

• A : 하루에 두 번 쪽배로 금오도를 왔다갔다 노저어 이동했지.
그리고 돈 있는 애들은 예수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지.

• Q : 구하는 학생 이유가 있으세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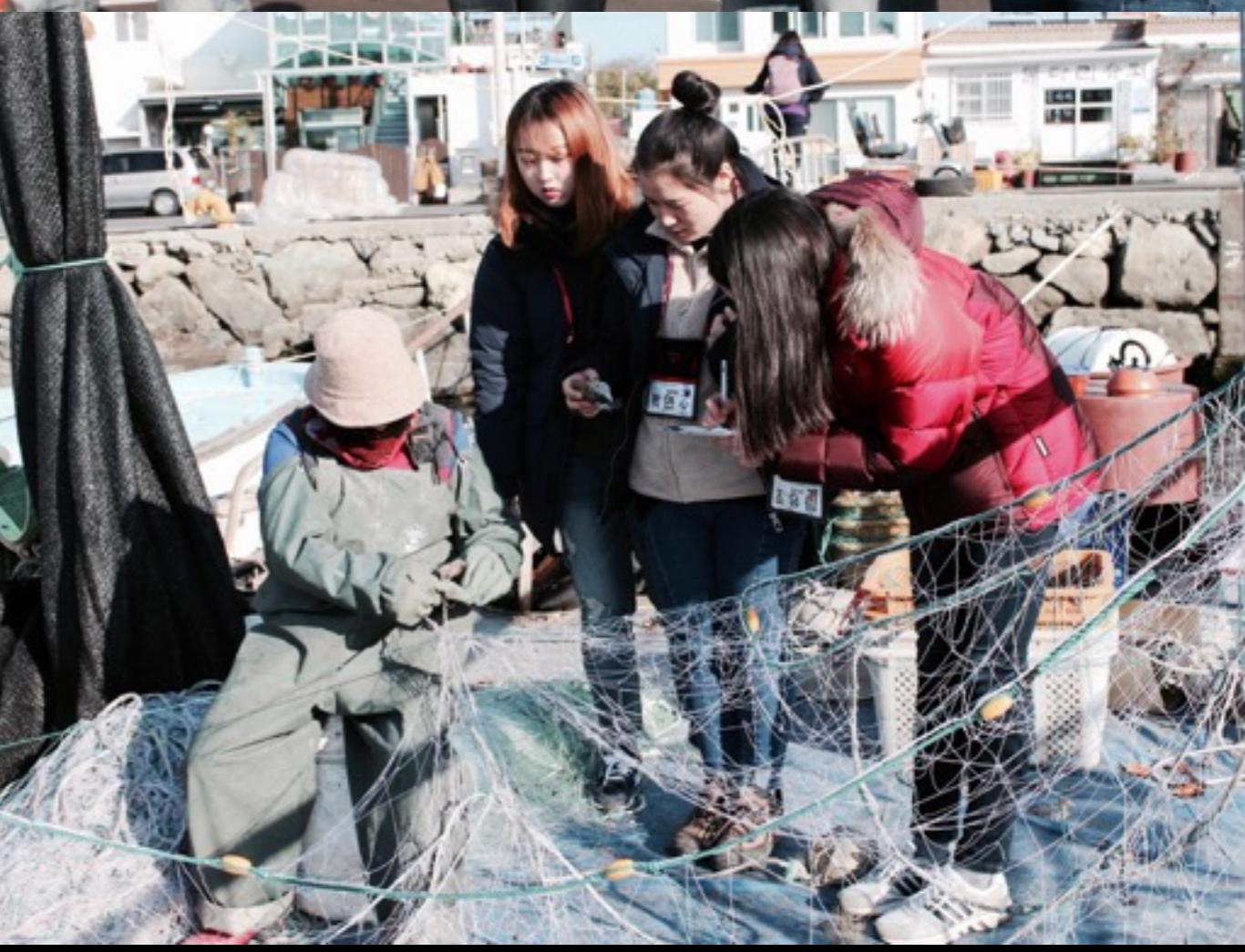
• A : 도시에 있다보니까 삶 생활이 그리웠어~

• Q : 육지 생활이 그립진 않으세요?

• A : 오히려 육지가 깨끗해. 안도 이 넓은 바다와 공기가 너무 좋고 생활이 만족스러워.

-어부 박정우(65)님 외 3분의 인터뷰 中-





“놀게 놀어서 심심하지 않아?”

“전혀. 고양이랑도 놀고 아빠가 자주신 로봇들이랑 놀아서 심심하지 않아.”

-안도 씨마을 예현 군(10)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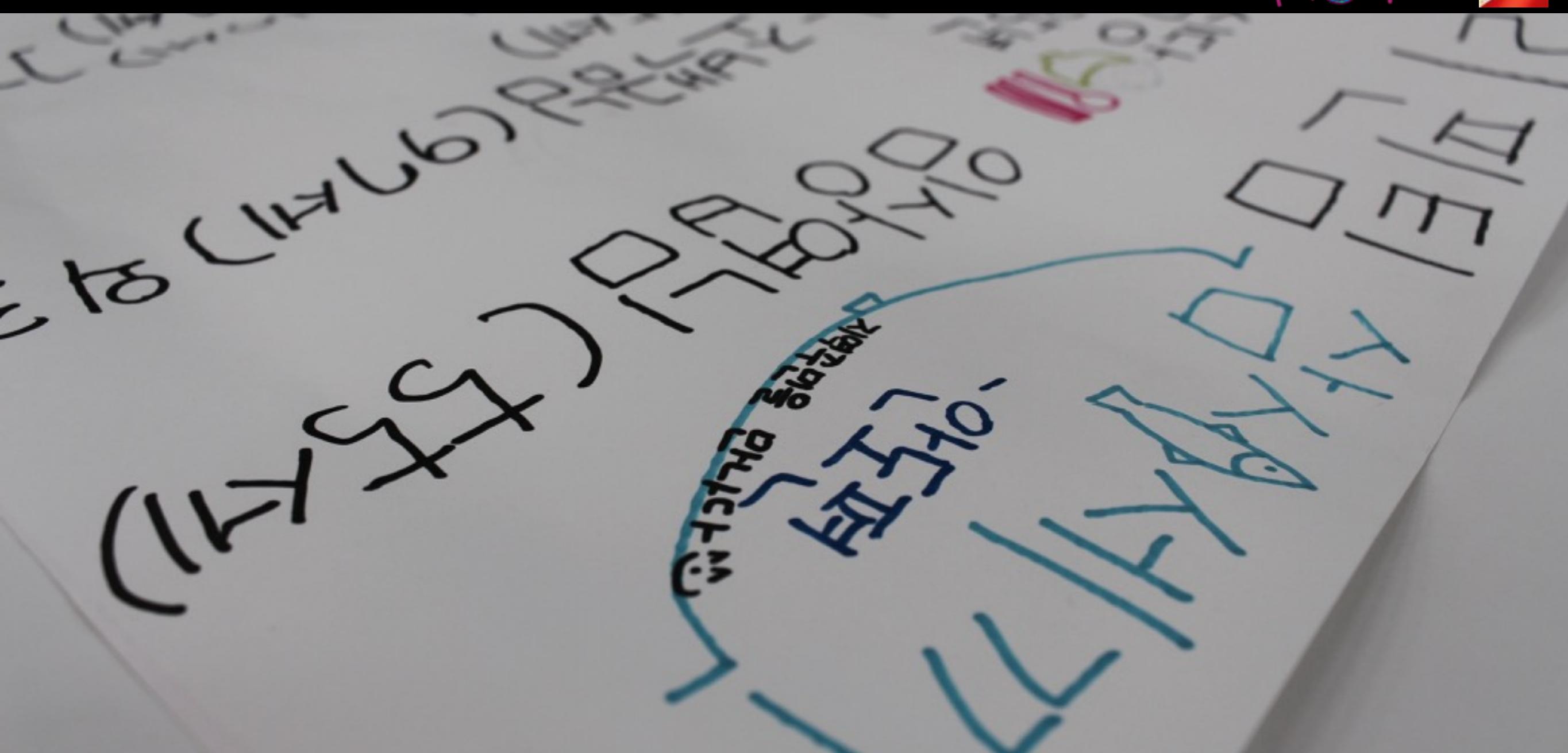
- Q : 1,2학년 교실을 같이 쓰는데 수업은 어떻게 해?
- A : 교실은 같은데 수업은 따로 해~
- Q : 마이크린이 있는데, 어디서 배웠어?
- A :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마이크린을 하나씩 줬고, 학교에서 배워.
- Q : 기숙사 생활을 했던데, 가족들이랑 떨어지는게 아쉽지 않아?
- A :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괜찮아요.





무빙스쿨 하면서 느꼈던 것들

- 다운 : 왜 나의 시선에서 그들을 미리 평가하고 생각했는지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. 아직도 많이 개발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다.
- 연수 :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본 나의 전 모습이 후회스러웠다. 무빙스쿨로 인해 그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,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좋았다.
- 유림 :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과 마을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.
- 현식 : 모든 판단 기준은 우리가 아닌 그들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.
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고 끝내고 나서는 많은 부분에서 반성을 하게 되었다.
- 동익 : 우리가 색안경을 낀 상태로 안도를 바라봤던 것 같았다. 필리핀에서는 이런 실수를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



“행복한 자는 스스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되는 것이다.”

-라온아띠 15기 팡가시난 팀-

“Salamat Po”

(감사합니다)